

영덕종친회 제55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병윤씨 선출

영덕종친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영덕종친회관에서 남녀노소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임원,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권오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죽친 여러분들의 성원, 격려로 임기를 별대 과업이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훌륭한 회장단을 선출해 앞으로

로 더욱더 발전하는 종친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권병윤 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병윤씨(부정공파, 34세)를 감사에 권위할, 영해씨가 선출되어 신입회장에 인사와 기타토의가 있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炳潤 ▲부회장 : 권聖



영덕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병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德, 寧崇, 孝俊, 五燮, 壽福, 五和 ▲ 여성부회장 : 權玉素, 淑今 ▲ 사무국

장 : 權信基 ▲감사 : 權啓進, 寧海 <권혁세 기자>

에드워드 권, 음식다큐 출연



‘스타셰프’ 에드워드 권영민(40)가 안시야 13개국을 탐방하는 요리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나섰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방송국 LITV의 ‘아시아 쿠킹로드’ (가제) 각 나라의 현지 음식을 맛본 뒤 현장의 재료로 즉석에서 권씨의 스타일로 요리를 선보이는 ‘리얼 요리 다큐멘터리’이다.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오사카 및 한국 전주 편까지 촬영을 앞두고 있다. 9월부터 시리즈로 방영될 예정

권혁세 금감원장

“주주가치보다 소비자보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연이은 고배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또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처럼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행거기에 이어 소비자보호를 집중해야 할 ‘본연

의 임무’로 내세운 것이다. 금융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올해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실추된 권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금융신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 원장은 세미나에서 금융지주사들의 고배당 움직임과, “주주가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봉헌, 서민금융을 먼저 하고 배당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사국 국제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져볼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미래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는지, 자본은 확충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이 프로그램은 이미 64개국과 방영 계약을 마쳤으며, 국내의 케이블 채널에서도 한글 자막과 함께 방영할 예정이다.

권 씨는 앞서 2009년 국내에서 방영된 ‘에스 셰프 시즌1’이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되면서 폭넓은 팬을 확보한 상태, 권 씨는 “제 전공이 서양 음식인 만큼 아시아 토속 음식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며 “하지만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현재 한국의 양식 레

스토랑은 거품이 상당하다”며 “5,000-6,000원짜리 대중 음식 아닌 10만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양극화돼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레스토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004년 W서울호텔 부총주방장을 거쳐 2006년 웨라톤그랜드, 텐진호텔 총주방장, 2007년 두바이의 7성급 호텔 ‘부르즈 알아랍’에 수석총괄주방장으로 진출하면서 스타 셰프가 됐다.

<동아일보 6.24. 정재윤기자 인용>

권 원장은 또 “7월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철패·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금융시장에 나타나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규사실이 적발되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내부 차등별도 설치한다.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 역할을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도 촉구했다.

수치상 확대가 아닌 순이익 규모에 맞춰 짜임새 있는 지원을 펼쳐라 는 주문이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502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규모 대비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1.1% 줄었다.

권 원장은 이날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말처럼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며 “감독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풀어가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 가치를 ‘금융소비자 보호’로 삼았다”며 “진정성 있는 제도개선과 이행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대환과 불완전판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금융업권별로 대출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금융사에 상품조사 의무를 부과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부도 교섭력에서 약자인 소비자보호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머니투데이 2011. 7. 20. 박종진, 전예진 기자 인용)

영천청년회 제23회 전국체전 개최 추진



안동권씨의 발상지이자 1백만 국민의 정신적 보향인 안동에서 1987년 3월 능곡회가 발족되어 89년 5월 능곡회 주최로 제1회 전국체전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어 지난해 4월 24일 제22회 대회가 청송청장년회 주최로 훌륭하게 치러졌으며, 아제 체전행사가 전국지역 죽친간에 유대강화와 친선교류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 제23회 전국체전 행사는 영천청년회의 주최로 오는 9월 25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코져 추진 중에 있다.

영천청년회는 1978년 2월에 권오철, 순석, 석만씨의 발기로 발족되어 권병태 초대회장, 주녕(2대), 혁운(3대), 영돈(4대), 순갑(5대), 영민(6대), 오철(7대), 영성(8대)에 이어 9대회장에 권순석씨가 선출되어 제3회 전국체육대회를 훌륭하게 개최해 청년회를 반석위에 올렸으며, 석만(10대), 순철(11대), 종달(12대), 형락(13대), 영선(14대), 대린(15대),

오득(16대), 17대회장에 권영하씨가 선출되어 체제확립과 회원확충에 박차를 가했으며 18대 권경환 회장은 종친회와 연계해 유대강화와 문화 발전에 진력했으며 또한 권혁운 19대회장은 청년회 활성화와 젊은 세대를 규합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문사창출에 새 지평선을 열기도 했다.

20대 권중관 회장은 청년회를 체계화, 조직화, 현대화로 추진 운영하면서 전국체전 유치에 기여했으며 지난해 10월에 21대회 회장에 취임한 권병혁 회장은 현 제23회 전국체전 행사의 조직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권병혁 회장(57, 부정공파 36세)은 소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쌀전업농 부회장, 쌀산업 농업대학 회장, 영천시 농업경영인 중앙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 범어포도작목반 회장으로 있으면서 영천지역 발전에 크게 헌신하고 있으며 경북도지사, 영천시장, 농업인총협장 등 다수의 표창장을 받았다.

현 영천청년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문 : 권호락, 영일, 종성 ▲회장 : 권병혁 ▲수석부회장 : 권세록 ▲부회장 : 권순호, 태식, 영환, 영규 ▲사무국장 : 권영철 ▲재정국장 : 권중근

<권오복 편집위원>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권혁인 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4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권 이사장은 행사 19회로 대통령비서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을 역임했다.

<편>

권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고객에 대한 정책역량을 높일겠다”며 “공단이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약력

△강원(55세) △강릉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강원대 행정학박사 △삼척군수 △강원도청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등정



▲권택기 의원은 지난 6월 22일 270개 시민단체가 3년간 의정활동 중 종합평가에서 선정한 국회헌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권오철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53)을 제8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1일 삼성전자인쇄부품사 사업부 LCD 등 부품 사업을 한데 묶어 ‘DS(디바이스 솔루션) 사업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권오현 반도체 사업부 사장(59)을 총괄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는 28일 오후 7시, 서울 회현동 렉스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제28대 회장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제청한 권순환 소이상사 회장을 대의원 민정임치로 선출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진)은 5일-8월 1일 한양대 ERICA캠 퍼스에서 ‘2011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국어교사 집중연수’를 실시했다.



▲권오웅 누내안과병원장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대의원회에서 제54대 대한안과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권오웅 누내안과병원장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대의원회에서 제54대 대한안과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1. 저자소개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저술한 경학해설서(經學解說書)인 오경천견록 즉, 『예기천견록』·『서경천견록』·『서경천견록』·『춘추천견록』·『주역천견록』 중의 하나이다.

권근은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초명은 진(晉)이며 자는 가원(可遠)인데 뒤에는 사숙(思叔)으로 고쳤다. 양촌은 그의 호(號)이다. 그의 증조부인 국제 권보(權輔, 1282-1346)는 원나라에서 『주자전서』를 배겨 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불리는 회헌(晦軒) 안향(安祥, 1243-1306)의 제자이며, 익재(益齋) 이재현(李齊賢, 1287-1367)의 장인으로, 『사서집전』을 최초로 출판하게 하여 주자의 생리학을 정도(淸導)하였다.

양촌의 스승은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다. 목은은 익재에게 사사하였고, 익재는 국재의 문인이자 사위였다. 가문으로 보나 학문의 전승으로 보나 양촌은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개혁사상인 유학사상의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고려말의 주도적 개혁세력인 신진사대부의 중심인물로서 유학의 근본이념과 정신을 깊게 이

해하였으며 이러한 이념과 정신을 개혁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양촌은 어려서부터 문학이 뛰어나 17세 때 이미 상군시에 합격하고 18세 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37세 때까지는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러나 38세 때부터 유배생활이 시작되었고, 유배지를 수차례 옮기는 등 심한 고생을 하기도 하였지만,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한국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귀한 시간이 되었다.

권근(益州)에 귀양중이던 39세(1390년) 때 대표적 저서로 평가되는 『입학도설』을 저술하였으며, 40세(1391년) 때는 충주의 양촌에 머물며 『예기천견록』의 기초를 두고 『주역』·『서경』·『서경』·『춘추』의 천견록을 저술하였다. 42세 때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창립한 태조의 부름을 받았고, 이후 58세로 세상을 하직하기까지 성균관 대사성, 예문관 대제학 등 문관의 고위직을 두루 섭렵하면서 조선 왕조의 문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몇 년 동안의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의 저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의 불행은 후세 학문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50세 때 길장군(吉昌君)에 제수되었으 며, 사후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2. 저작동기와 체제

오경천견록 가운데 1391년에 시작되어 1405년에 완성된 『예기천견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배지에서 풀려 나와 충주의 양촌에 머물던 1391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익주(益州) 유배 중 초학자들을 위한유학입문서인 『입학도설』을 저술한 다음 해의 일이다. 1390년 7월 익주로 귀양었다가 1391년 2월 해배되어 충주의 양촌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산해 보면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저술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 동안 쌓인 학문적 은축 없이 불가사한 작업이었다. 천견록 가운데 『예기천견록』이 26권의 많은 분량으로 1406년 왕에게 진상된 이래 여러 차례 간행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가지 천견록은 간행에 오르지 못한 사실만 김반(金半)의 상소문에 나와 있고 간행한 사실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 동안 아예 저술한 사실마저도 부인한 학자가 있었다.

근래에 와서 ‘춘추천견록’은 원문이 2장 4엽에 불과한 초라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했어도, ‘주역천견록’과 『시·서경천견록』이 발굴되어 국가의 보물로 지정된 것은 저자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학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학자들의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역천견록』의 의서시사항과 발행·발굴 경위는 『서지학보』 제4호 천혜보교수의 글에 자세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가 이 책을 저작한 동기를 알아보자.

양촌의 『주역천견록』 저작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경학관을 살펴야 한다. 그의 경학관은 경학의 입문서인 『입학도설』에 자세하다. 그의 경학관은 오경중심의 체용적 경학관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그의 천인합일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입학도설』은 서문과 발문을 제외하면 25개 제목으로 되어 있다. 그 중 『논어』와 『맹자』의 뜻을 해석한 ‘어맹대지(語孟大意)’에 『논어』는 인(仁)에 독실하여 봄 날씨처럼 훈연(惇然)하고 『맹자』는 의(義)에 얽하여 가을 날씨처럼 엄숙하다』로 시작하여 이 두 책이 이치를 따르는 것이 이롭고 이치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해로움을 꼭진하게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도표도 없이 간행을 요청한 사실만 김반(金半)의 상소문에 나와 있고 간행한 사실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그 동안 아예 저술한 사실마저도 부인한 학자가 있었다.

경 전체를 하나의 체용으로 파악하는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역』은 오경의 온전한 체[全體]이며 『춘추』는 오경의 큰 작용[大用]이다.

『시』는 정사를 말하고 『시』는 성정을 말하여 『예』는 절도와 문체를 삼가는 것을 말한다. 비록 각기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지만 『역』과 춘추의 체와 용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위대하다.

성인은 오경의 온전한 체이며 오경은 성인의 큰 작용이다. 『역』이란 도는 천지에 있지만 성인이 체득한 것이며 『춘추』의 도는 성인에게 있지만 천지도 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자 역이 그려졌으며 『춘추』가 지어지자 기린이 이르게 되었다. 그림이 나오자 역이 그려졌으며 『춘추』가 지어지자 기린이 이르게 되었다.

오경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고가 유학을 사서 중심이 아닌 오경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학을 공자와 맹자 이후의 사상이 아니라 하-은-주 삼대 이전의 성왕들이 천하를 경영하던 철학고 통치체제로 파악하는 입장이자 이처럼 오경을 중심으로 유학을 이해할 경우 공자와 맹자 그리고 송대의 유학자들인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기보다는 오경중심의 유학의 도를 전수하고자 노력한 인물들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로부터 양촌경학이 비교적 자유로 입장에서 경전을 해석할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오경각분체용지도’에 의하

면 『역』의 온전한 체는 천지에 있는 이치이며 커다란 용은 성인에게 있는 도이다.』 그뿐 아니라 『시』·『서』·『예』·『춘추』 각각에 대해서도 사상의 핵심을 모두 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성인을 오경의 체요, 오경을 성인의 용』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개된다. 아울러 오경 가운데서도 『역』과 『춘추』를 오경 전체를 포괄하는 체용으로 규정하고, 『시』·『서』·『예』는 보다 협소한 피미에 속 각각의 체용을 지녔지만 크게는 『역』과 『춘추』의 체용을 갖춘 것이라고 하였다.

양촌은 오경이 사서보다 중요하며 오경 가운데서도 『역』을 오경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입학도설』의 24개 제목 가운데 순수하게 『역』과 관련된 그림의 제목이 10개나 되며, 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면 전체의 그림이 14개나 된다. 이는 『역』을 오경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학적 특성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 내지는 천지와 인간의 관계가 천지와 인간이 하나라는 ‘천인합일’의 커다란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입학도설』의 제1도 ‘천인심성합일지도’이고, 제2도는 ‘천인심성분석지도’이다. 양촌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리(理)의 실현으로 보고 학문을 천인합일의 실현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리의 보편적 자유로 입장에서 경전을 해석할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오경각분체용지도’에 의하

를 이룬다. ‘천인심성합일지도’의 전체구조는 추만 정치운과 퇴계 이황이 공동연구로 완성한 『천명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입학도설』에 나오는 ‘대학지정지도’는 퇴계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학십도』의 제4도로 자리잡게 된다.

격률치지설을 포함한 『대학』의 삼강량과 팔조목에 대한 그의 이해가 퇴계에 의하여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천인을 일관하는 것으로 보는 양촌의 경학적 관점은 『역』의 이해에 또 적용되어 『역』은 천지의 이치를 온전한 체로 삼고 성인의 도를 커다란 용으로 삼는다』라고 언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